

보도시점 2025.9.26.(금) 10:00
(2025.9.26.(금) 석간)

배포 2025.9.25.(목) 16:00

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, 기상청 R&D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

- 세계 9번째로 독자 개발한 ‘한국형 수치예보모델’을 운영 중인 기상청에 방문하여 극한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기상분야 R&D 투자 방향 등 논의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배경훈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월 26일(금) 기상청(청장 이미션) 서울청사에 방문하여 기상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이번 간담회에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이미션 기상청장, 김동준 수치모델링센터장, 박훈 차세대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장 등 기상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.

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상기술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, 기상분야 R&D 투자 방향과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도(8km)를 자랑하는 ‘한국형 수치예보모델(KIM*)’을 운영 중인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하여, 24시간 위험기상·지진감시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다.

* 한국형 수치모델(KIM): Korean Intergrated Model

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“수치예보모델 연구를 통해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”고 밝히며, “기상 분야 R&D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겠다”라고 말하였다.

담당 부서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에너지조정과	책임자	과 장	김형수 (044-202-6840)
		담당자	주무관	정준영 (044-202-6845)

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
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·AI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